

단순투자라던 반도건설, 한진칼에 경영참여 요구

한진 “3자 주주연합 허위공시… 자본시장법 위반”

반도건설, 명예회장 선임 등 요구
지분 3.28%에 대한 처분명령 요청

카카오, 한진칼 지분 일부 매각

한진칼 주주총회가 열흘도 남지 않은 가운데 돌발변수로 인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3자 주주연합 간 쟁점이 복잡해졌다. 조회장의 우군으로 분류된 카카오 측이 일부 지분을 매도한데 이어 ‘3자 주주연합’의 반도건설이 허위공시 논란에 휘말리며 의결권을 가진 지분율이 줄어들 가능성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반도건설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 8.28%를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반도건설이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참가’로 바꾼 올해 1월 이전부터 실질적인 경영 참여를 요구해왔다는 것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르면 5% 이상의 주식을 보유



한진그룹, /연합뉴스

하게 된 이는 보유목적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반도건설의 계열사 대호개발은 지난해 10월 한진칼 주식 5.06%를 갖고 있다고 첫 공시했다. 당시 반도건설은 경영참가의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한진그룹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반도건설이 주식 보유 목적 관련 허위 공시를 했다고 비판했다.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은 이미 ‘경영참가’로 주식 보유 목적을 변경하기 이전인 지난해 8월과 12월 조 회장 등 한진그룹 대주주들

만나, 본인의 한진그룹 명예회장 선임을 비롯한 한진칼 임원 선임 권한, 부동산 개발권 등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한진그룹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반도건설 측이 보유한 전체 지분 중 5%를 초과하는 3.28%에 대해 ‘주식처분명령’을 내려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반도건설은 “지난해 7월경에 2~3차례 만남을 가졌다. 해당시기 전후로 반도건설 측 지분은 0~3%였다”며 “때문에 지난해 조 회장을 만난 당시 명예회장 요청 등 경영 참여 요구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부인했다.

뿐만 아니라 한진그룹은 KCGI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진그룹이 제기한 위법 사항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활동 위반 ▲SPC(투자 목적 회사) 위법 투자 행위 ▲임원·주요주주 보고 의무 위반 등 세 가지다.

먼저 한진그룹은 KCGI가 지난 6일

의결권에 대한 위임장 용지와 참고 서류를 제출해, 이틀(주말 제외)이 지난 11일부터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가 가능함에도 7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진그룹은 “SPC(투자 목적 회사)의 경우, 10% 이상 경영권 투자를 하지 못하면 그로부터 6개월 이내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KCGI의 SPC 중 그레이스홀딩스를 제외한 5개는 경영권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엠마홀딩스는 12개월이 지나 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레이스홀딩스는 ‘주요 주주’에 올랐으나 특별관계자인 엠마홀딩스나 캐트홀딩스가 보유한 주식 수를 포함해 공시했다”며 “이는 실제 주식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공시 의무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한진그룹은 현재 KCGI의 의결권 대

리행사 권유 규제 위반에 대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한 및 수사기관 고발을, 투자목적회사의 투자규정 위반에 대해 KCGI에 대한 업무정지 및 해임요구를, 임원·주요주주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해 시정 명령 및 수사기관 통보를 요청한 상태다.

한편 조 회장 측의 우호 지분으로 분류됐던 카카오도 최근 한진칼 지분 일부를 매각해, 1% 이하로 낮추며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제기된다. 카카오는 지난해 말 한진칼 지분을 1% 매입하고 올해 추가로 1%가량을 사들였다. 이에 조 회장의 백기사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카카오는 “이번 한진그룹 주주총회에서 경영권 개입에 나설 생각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까지 조 회장 측과 주주연합의 지분은 각각 32.45%, 31.98%로 추산돼 0.5% 포인트 차를 보이고 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기아차 4세대 쏠렌토 공식 출시

가격 더 낮게… 2열 독립시트로 편의성 UP

사전계약 일 평균 1500대 넘어
디젤모델 기본 가격 2948만원

기아자동차가 올 상반기 야심작인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4세대 쏠렌토를 공식 출시했다. 4세대 쏠렌토는 2014년 3세대 출시 이후 6년 만에 출시됐으며 기아차가 오랜 기간 공들인 모델이다.

기아차는 17일 신형 쏠렌토의 온라인 론칭 토크쇼를 열고 판매에 본격 돌입했다. 이날 신형 쏠렌토의 신차 출시행사는 네이버 자동차,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통해 생중계됐다.

4세대 쏠렌토의 초기 소비자 반응은 예상대로 뜨거웠다. 앞서 진행된 사전계약에서 18일만에 2만6000대가 계약되는 등 하루 평균 1500대를 넘어섰다. 특히 주요 목표 고객층인 30~40대 ‘밀레니얼 대디’의 호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세대 쏠렌토의 사전계약 고객 중 30~40대 비율은 58.6%(30대 27.9%, 40대 30.8%)로, 지난해 한해 쏠렌토 30~40대 고객 비율이 약 47%인 것과 비교해 크게 높았다. 신규 플랫폼을 바탕으로 제공하는 넓은 실내 공간과 강력한 주행성능, 우수한 안전성이 ‘패밀리 SUV’를 원하는 밀레니얼 대디의 니즈를



기아차 4세대 쏠렌토.

충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반응은 합리적인 가격 책정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디젤모델의 최종 기본가격은 사전계약 때보다 크게 낮아진 상태다. 신형 쏠렌토 디젤 모델의 기본가격은 2948만원으로 확정돼 사전계약 당시 3070만원에 비해 120만원 이상 저렴해져 가격경쟁력이 높아졌다.

신형 쏠렌토 디젤 모델은 강화된 배출가스규제를 충족시킨 ‘스마트스트림 D2.2’ 엔진, 우수한 변속 응답성과 부드러운 변속감을 갖춘 습식 더블 클러치 변속기(DCT)인 스마트스트림 습식 8DCT를 현대차그룹 최초로 적용해 탁월한 주행성능과 높은 연비를 구현했다.

최고출력 202마력, 최대토크 45.0kgf·m의 힘을 발휘하고, 복합연비는 1L당 14.3km에 이른다.

/양성운 기자 ysw@

또 4세대 쏠렌토의 차체도 기존 모델보다 넓어졌다. 동급 중형 SUV는 물론 상위 차급인 대형 SUV와 비교해도 경쟁력 있는 실내공간을 완성하고 공간활용성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대형 SUV에만 적용되던 2열 독립시트를 적용해 2열 승객의 거주 쾌적성과 편의성도 강화했다.

신형 쏠렌토에는 다양한 첨단 기술이 대거 적용됐다. 현대·기아차, 제네시스 브랜드를 통틀어 처음 탑재되는 2차사고 방지 첨단기술인 ‘다중 충돌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MCB)’을 비롯해 주유소, 주차장에서 내비게이션 화면을 통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기아 페이’, 스마트폰으로 차량 주변을 확인할 수 있는 ‘리모트 360도 뷰(내 차 주변 영상)’ 등이 탑재됐다.

/김수지 기자

SK C&C-오토메이션애니웨어 MOU

핵심 업무별 최적의 RPA 모델 개발

(로봇자동화)

양사가 보유한 기술 역량 결합

SK C&C가 제조·금융·통신·서비스 등 주요 산업별 시스템에 특화된 지능형 업무 로봇 개발을 위해 글로벌 리딩 기업과 손을 잡는다.

SK C&C는 17일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 분야 글로벌 1위 기업 오토메이션애니웨어와 ‘RPA 기반의 디지털 전환(DT) 사업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오토메이션애니웨어는 전 세계 90여 개 국가에 위치한 3500개 이상의 기업에게 170만개 이상의 업무 로봇을 제공, 생산성 제고와 비즈니스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리딩 기업이다.

이번 MOU는 SK C&C가 보유한 AI-클라우드·빅데이터 기반 종합 디지털 플랫폼·시스템 구축역량에 오토메이션애니웨어의 RPA 기술 역량을 결합, 산

업별 시스템 및 업무 특성에 최적화된 ‘지능형 RPA 시스템 모델’ 개발을 위해 추진됐다.

양사는 향후 기업별 업무 특성을 분석해 관행적으로 처리하던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는 ‘핵심 업무별 최적의 RPA 적용 모델’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ERP(기업자원관리)에서의 자동화는 물론 각 산업별로 특화된 업무 영역에서의 자동화가 이에 해당된다.

양사는 먼저 대형 글로벌 플랜트 및 건설 분야 디지털 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RPA 시스템을 개발, SK건설 조달 업무에 처음 적용할 예정이다. 한국에서 만들어질 RPA 시스템이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의 디지털 전환 시스템 구축 시장 개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

LGU+, 반려동물 위한 상품·혜택 하나로

‘펫 플러스’ 결합상품 출시

LG유플러스는 펫팸족을 위해 유무선 결합시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펫 플러스’ 결합상품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펫팸은 각각 애완동물과 가족을 뜻하는 영어 펫(Pet)과 패밀리(family)의 합성어다.

‘펫 플러스’ 요금제는 반려동물 케어를 위한 모든 유무선 상품과 제휴 혜택을 월 8만원대 요금으로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결합상품으로, 통신사 중 LG유플러스에서만 제공하는 반려동물 전용 상품이다. 이 결합상품에는 외부에서도 반려동물을 스마트 폰으로 볼 수 있는 CCTV 맘카와, 펫의 운동을 도와주는



모델들이 ‘펫 플러스’ 결합상품을 알리고 있다. /LG유플러스

펫 피트니스, 수면 등으로 구성된 스마트홈 서비스가 포함돼 있다.

펫 플러스 가입자는 네이버 쇼핑 및 오픈마켓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네이버페이 포인트 1만5000원 바우처를 매달 제공받을 수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

진에어, 챗봇에 전자티켓 재발송 기능 추가

간단한 정보 입력으로 전자티켓 확인

진에어가 코로나19로 탑승객이 겪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서비스 개선에 나섰다.

진에어는 17일 고객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챗봇 서비스에 항공운항확인서 전송 및 e티켓(전자티켓) 재발송 기능을 추가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고객들은 진에어의 챗봇 서

비스인 ‘제이드’에서 보다 쉽고 빠르게 항공운항확인서를 받아볼 수 있고,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전자티켓을 확인하고 필요 시 이메일로 전송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당 기능이 챗봇 서비스 첫 화면에 배치돼 한 번의 클릭으로 접근할 수 있다.

/김수지 기자